

광주시장 관사, 폐지 4년만에 부활 논란

市 “이 당선인 첨단 집 시청과 멀고 낯아 서구 34평 아파트 3억2천만원 계약”

시민단체 “전국 지자체들 매각하는데 권위주의 시대 유물 부활 문제 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때 폐지한 시장 관사를 민선 7기 들어 되살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이용섭 시장 당선인이 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구 매월동 A아파트(112㎡·34평형) 한 채를 3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선인의 첨단지구 전셋집이 시청과 멀어 업무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선인 측과 협의를 거쳤지만 당선인측이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광주시장 관사는 민선 6기 윤정현 시장이 관사를 폐지한 지

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윤 시장은 2014년 취임 이후 관사인 삼촌동 힐스테이트 아파트(159㎡·48평형)를 4억여원에 매각 처분했다. 윤 시장은 당시 “광주에 살던 집이 있는 데다 관사가 권위주의 상징이고 세금 낭비라는 판단에서 관사를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선 5기까지 관행적으로 시장에게 관사를 제공했다. 민선 1기 송언종 시장과 민선 2기 고재유 시장은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208㎡·63평형)에서 생활했다. 민선 3, 4기 박광태 시장은 시청사가 상무지구로 옮겨지면서 상무지구 한 아파트(197㎡·60평형)를 2010년 5월까

지 이용했다.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은 서구 삼촌동 한 아파트(159㎡·42평형)에서 4년을 생활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현재 거주하는 전세 아파트가 낡은데다 시청사와 멀어 업무를 하고 휴식을 취할 공간이 필요해 시청 근처에 관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개인의 집이 아닌 ‘제2의 시장 집무실’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단체장 관사 부활에 대해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없애는 추세임에도 관사를 새로 장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당선인은 관용차로 전임 시장이 사용하던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와 전기차 쏘울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이 카니발은 2016년 4000여만원에 사들였고, 전기차는 전용차가 아닌 시 보유 공용차량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박준영·이낙연 전 지사가 사용해 온 관사를 계속 사용할 방침이다. 간부 회의·외빈 접대 등 업무 공간의 연장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지사 공관은 무안군 삼향면 도청 인근에 있다. 지난 2006년 34억원을 들여 안채, 사랑채, 문간채 등을 갖춘 한옥으로 지었다. 지사거주 공간(445㎡ 규모)과 외부 손님 숙소, 회의 공간(650㎡ 규모)으로 이뤄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90일 장정’ 드루킹 특검 공식 수사 돌입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 여권 핵심 수사 주목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장 90일간 이어지는 공식 수사에 27일 돌입했다.

이번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 추이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역 인근 J빌딩에 차려진 특검 사무실을 개소했다. ‘조용한 출발’을 바라는 허 특검의 의사에 따라 현판식 등의 행사는 생략하고 특검보 등과의 아침 회의로 첫날을 시작했다.

파견검사 13명 중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확정된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2명도 이날 합류했다. 팀 구성이 늦어지면서 수사 초반에는 기록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발빠르게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첫 강제수사 대상이 어디인지에 따라 특검이 바라보는 이번 사건의 성격이나 향후 수사 방향도 일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특검팀의 일거수일투족에는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검 임명일로부터 최장 20일을 수사 준비에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정식 수사는 최대 60일간 진행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

레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 ‘드루킹’ 김동원(49)씨 및 그가 이끈 경제적권진화도입(경공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이에 연루된 범죄혐의자들의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 그 외 인지 사건이다. 이에 따라 허 특검은 첨단수사 경력을 다수 총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의 핵심이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에 김경수 당선인이 관여했는지, 실제로 관직 인선 문제를 여론조작 활동의 대가로 논의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데 있다고 본다.

한편, 특검팀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정부비서관 임명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간의 준비 기간에 유의미한 자료를 찾았다고 말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 특검은 이날 “그런(청와대) 인사에 대해 저희가 어떤 영향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송 비서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가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막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야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전혀 개의할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JP 영결식 엄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영결식이 27일 오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정우택·정진석·안상수 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장례위원장인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조사를 통해 “김종필 총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만끽하는 오늘을 있게 한 분”이라며 “산업화의 기반 위에 민주화가 싹 트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어 “복수를 건 혁명과 매국노의 누명을 쓴 한일협상, 두 차례의 외유와 신군부 탄압과 망명의 정치 일정은 한 편의 대하드라마가 아니고 무엇이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고초를 꿰뚫어 이겨내고 주위를 다독이며 웃으시던 모습에 사랑과 존경 버리지 않을 수 없다”고 추모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는 아들인 나카소네 히로부미(中曾根稔) 참의원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선생께서는 초대 한일국회의원연맹 대표를 역임하고 국무총리로서 한일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등 한일관계 강화를 위해 시종일관 힘썼다”고 말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김 전 총리의 유해를 실은 운구차는 고인이 살았던 청구동 자택에서 노제를 지냈다.

이어 고인의 유해는 고향 부여군 외산면 가족묘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김 전 총리의 부인 고(故) 박영옥 여사가 2015년 장든 곳으로, 김 전 총리는 부인 곁에서 영면한다. /연합뉴스



김종필 전 총리 영결식이 열린 27일 유가족들이 고인의 고향인 충남 부여 가족묘에 고인의 유골함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여름 불청객’ 적조 대비 태세 강화 ... 내달 2일 상황실 운영

전남도가 7월부터 적조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여수 등 바다를 낀 시·군에 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전달했다. 또 다음달 2일부터는 적조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7월부터 적조생물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른 조치다.

전남도는 양식 생물 사육량 조사를 철저히 하고 황토 등 국제품질 확보, 산소 발생기 등 방제장비 점검 등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시·군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가입률을 지난해(43%)보다 높은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6월 중순 현재 보험 가입 대상 2833여가 가운데 2210여가가 가입했다.

전남도는 적조가 발생하면 가두리 양식장을 안전해역으로 이동하고, 폐사가 우려

되던 긴급 방류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황토 7만4000t과 공공방제장비 15대, 산소발생기 등 개인장비 4544대로 확보했다. 또 적조 방제 사업비 11억 원, 적조 피해 예방 가두리 현대화 시설 지원비 59억 원을 시·군에 배정했다.

한편 전남 적조 피해는 2015년 188억 원, 2016년에는 347억 원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산가족 상봉 시설 점검단 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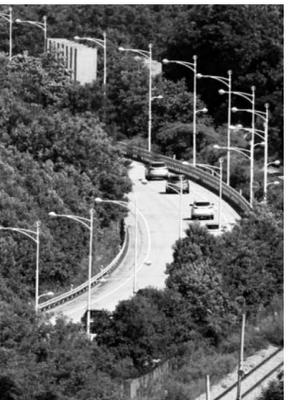
오는 8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앞두고 금강산 현지시설물을 점검할 우리측 점검단이 27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했다. (사진)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를 비롯해 현대이산과 협력업체 직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승용차 10대를 이용해 이날 오전 9시 20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출발, 9시 30분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들은 금강산에 머물며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온정각 등 상봉행사와 관련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오는 29일 돌아올 예정이다.

점검단이 돌아온 후에는 점검단이 파악한 시설물 보수할 인력이 수시로 방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점검단 단장인 김병대 통일부 인 도협력국장은 “지난 6월 22일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시설점검단이 오늘 방북하게 됐다”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차질없이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BM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1억
- 장성 북이면 장성면 인근 전 2136㎡ 주택·창고적합 4700만원
- 신안군 압해도 북동리 1810㎡ 저수지옆 조용한생활 적합 4300만원
- 곡성 삼거리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화순 동면 땅 706㎡ 2층전원주택 상가주택·아파트와 교환용 2억6천
- 월산동 소방도 땅 165㎡ 주택 179㎡ 3세대 생활용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망운면 목서리 도로접 전 2238㎡와 환경면 해운리 대지 555㎡ 귀농생활적합 은행 9천 인수하고 2500만원
- 월산동 양면도로접 2중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억 대로접 상업지 364㎡ 16억
- 송남 보령시 원산도 664㎡ 농협 9천 취득 1억4천 매도 1300
- 영광 홍농읍 주거지역 5223㎡ 공사가 6700 매도 8700
- 화순 이양면 매점지 산 32923㎡ 국당 적합 7500만원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3천
- 수목정(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출용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함평역 건너 대로접 2중주거지 3192㎡ 다양함용도 2억6천
- 태양광적합 영광 군남 반안리 114843㎡ 매도 6억5천

상가건물

- 북구 우산동 대로접 땅 377㎡ 건물5층 972㎡ 은행8억 매도19억5천
- 동구 충장로57집 수기동 대지 168㎡ 2중건물 투자에 좋음 3억8천
- 북구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45실 830㎡ 은행5억 교환가능 9억
- 카센터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중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농성역 부근 대지 973㎡ 건물 457평 공시지가 18억 매도 39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9억
- 북동 5층건물 대지 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문앞

사추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추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공개강좌(무료)

- 일시 : 2018년 7월 8일(일) 오후2시
- 장소 :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 사추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공개강좌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추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